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참관후기

작성자: 이예한 (우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다. 마스크 없이 회사에 출근하고 친구를 만나던 일상은 온데간데없고 해외여행을 간 것이 마치 꿈만 같이 느껴진다. 경제적으로는 전 세계가 불안한 상황이며 수년간 일한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는 경우도 많다. 각 나라는 교역의 문을 닫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되었으나, 정말 문만 닫고 나라 간에 거리를 두는 것만이 해법일까. 코로나로 인해 바뀐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즉 다자주의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점에서 온라인으로 참관한 "세계지도자세션 : 다자협력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 세션에서는 팬데믹 이후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다자협력 주의'가 제시되었다. 다양한 지도자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본인이 이해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된 세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다자주의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해 중요한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문제를 의논하고 규칙과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 역할을 UN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에 동의한다. 국가들은 UN에 힘을 실어줘야 하고 이때 중요한 것은 각 국가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해야만 비로소 '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더불어 힘을 가진 국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작은 나라들이 모여 모범을 보여야 한다. 타르야 할로넨 전 핀란드 대통령의 말처럼 작은 나라는 '모범의 힘'을 가지고 있다. 여러 힘이 모이면 그것이 하나의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된다면 더는 한 국가에 있어 다자주의는 '이타적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위한 길이자 세계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이기적 이타주의'의 선택이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국가가 이에 동참할 것이다.

둘째, 다자주의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많은 국가가 동의하는 체계적인 질서 확립이 되어야 하는데, 그 때 참고할 만한 선례가 2015년의 파리기후변화협약이다. 이 협약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많은 국가들이 함께 의논하여 각국이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세웠다는 점에 있다. 이는 다양한 국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함께 해결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모든 국가가 참여하기 어렵다면 먼저 작은 국가들부터 모여서 질서의 기초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 후에 조금씩 확장해 다자주의의 장이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 문제뿐만이 아니다. 이주민 문제, 환경 문제, 경제, 분쟁 등이 모두 다자주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고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자주의의 '장'을 만드는 만큼 중요한 것이 마테오 렌치 전 이탈리아 총리가 언급한 각국의 '아이덴티티' 구축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조율이 이루어져 다자주의 체제가 확립이 된다 해도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될 것이다. 다자주의 문제를 경쟁의 표적으로 삼지 못하도록 철저한 체제 확립이 필요하다. 돈으로, 국민의 안전으로, 물의 풍부함으로, 땅의 크기를 무기로 한 경쟁이 아닌 역사와 문화의 차별성, 국내 우수 회사의 세계 경쟁력과 국가를 더 좋게 하고자 하는 운영 방법 등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이러한 건

강한 경쟁을 위해서는 '내 나라'만의 아이덴티티가 확고해야 하고, 그 바탕이 되는 것이 탄탄한 국민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본인의 생각대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세계의 지도자들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렇게 제주포럼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의견을 토론한 것이 다자주의를 향한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자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제주포럼에서 이야기된 지도자들의 지식을 더 많은 사람이 접하고 이에 동의한다면 다자주의라는 바람이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중견국인 대한민국이 다자주의를 위해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K방역을 시작으로 작은 국가 모델을 만드는 선두주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가가 자랑스러운 순간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을 때가 아니다. K방역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여 그 나라의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 때이다. 이번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K방역에 대해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였는데,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이를 잘 적용한다면 한 명이라도 더 코로나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타적인 선택처럼 보이겠지만 결코 이타적이지 않고, 국가의 이익이 되면서 세계에도 도움이 되는 '이기적 이타주의'라는 것, 그것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깨달을 때마다 팬데믹 시대 극복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길이라 생각한다.